

# 김옥임 교수가 쓰는 지족의 경제학 <11>

경제학은 시대의 산물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도 예외는 아니다.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일반이론>은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케인즈는 가격변수의 원활한 작용을 통해 시장이 항상 균형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아담 스미스의 경제이론 체계로는, 공황의 핵심적 요인을 분석해 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스미스가 경제의 총생산량은 수요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한 것과는 달리, 케인즈는 고용의 주체가 기업이므로 고용량은 노사간의 임금협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전체의 수요의 크기에 대한 기업가의 예상에 의해, 즉 유효수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효수요의 크기는 소비성향 투자의 한계효율, 그리고 이자율을 결정하는 유동성 선호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진전될수록 저축성향이 높아져 수요가 감소하고 기업가는 투자를 망설이게 돼 결국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될 것 이라고 예견했다. 특히 불황기에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 보유를 선호하게 돼 이자율을 낮추기 힘들므로 민간부문의 투자수요가 진작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임금을 인하시키는 것은 오히려 실업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를 사회화해 각종 공공투자를 집행함으로써 유효수요를 늘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

전고용의 균형만을 상징하고 분석하는 아담 스미스의 고전학과 이론을 특수이론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이론이 불안전고용상태의 균형분석까지를 포괄하는 '일반이론'이라고 주장했다.

케인즈는 또한 자신의 이론이 더욱 평등한 사회의 건설을 위한 철학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이자율이란 자본의 한계생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폐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생산과정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금리생활자의 안락사를 유도하고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금리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완전고용이 달성될 때까지 높은 저축성향은 오히려 유효수요의 부족을 초래해 부자일수록 저축성향이 높으므로, 상속세를 강화하고 그만큼을 저소득층의 소득세에서 감소시키면 사회의 평균적인 소비성향은 증대돼 결국 국가의 자본축적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그는 부와 소득의 편중분배가 불황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사상을 타파하는 것만이 양식 있는 엘리트의 소명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케인즈 이론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주의에 반하는 개입주의 정책론으로서 전후 활기찬 주류경제학의 흐름이 됐다. 그러나 1970년대에 문제가 발생한다. 케인즈 경제학에는 경기의 안정화라는 일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 때문에 경기가 좋은 때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해야 하고 지나치게 경기가 과열되면 긴축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만 되지 않았다. 왜

나하면 호경기인데도 정부, 여당원들은 '긴축'은 커녕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누구나 좋아하는 공공사업이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계획을 내놓았던 것이다. 케인즈 이론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절호의 이론적 기둥이 되곤 했다.

그렇게 되면 케인즈 경제학이 이야기하는 '경기 안정화'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고 오히려 경기 과열과 공적부문의 비대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경제는 경기과열에 의한 인플레이션과 거대한 재정적자, 그리고 공적부문의

비대화라는 '선진국 병'을 끌어안게 됐다.

1970년대 초 설상가상으로 오일쇼크가 일어나고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병존하는 상황이 된다. 그 결과 7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큰 정부'에 대한 비판이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케인즈 경제학으로부터 '작은 정부' '시장원리' '자기 책임'을 중시하는 머니타리스트(monetarist)나 '합리적 기대형평화론'과 불리는 신자유주의로 변해갔다.

신자유주의자들인 한 마디로 케인즈적인 경기 대책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적부문을 비대하게 만들어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상실시키므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실업과 물가의 동반상승)이 해소대책으로서 오히려 유해하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점차 유력한 정책사상으로 실제 경제에 적용되고, 결국 신자유주의 사조와 그를 지식이반으로 하는 경제제도의 개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의 결과로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를 받아들여야 했다.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했던 유럽대국도 신자유주의의 비중이 높아지고 우경화경향을 보인다. 프랑스에서 우파인 사르코지의 집권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자본론>에 의거한 마르크스주의는 어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 세계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결국 마르크스주의의 예언대로 굴러가고 있는 듯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경제학은 현상에 대한 분석의 틀이 있다 해도 불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하느냐 하는데 대한 변혁의 이론이 결여돼 있다. 위기에 빠

진 세계경제와 현대경제학 각각의 분야에서 그 나름의 노력이 축적돼 왔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 위기로 부터 탈출하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오늘의 경제학은 통틀어 혼미와 정체 속에서 부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어쩌면 시대인식이 결핍돼 있는 탓은 아닐까? 경제성장시대에서 21세기의 지구환경시대으로 크게 전환해가고 있는 이때 과연 진정한 풍요로운이란 평가를 다시 되풀이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변혁에 새로운 경제사조가 절실한 때이다.

이러한 시대인식 없이는 21세기가 요구하는 과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사상을 창조하고 구축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좋지 못한 현재의 경제 사회 현상을 어떻게 변혁시켜나간다는 하는 개혁적인 문제의식을 결여한 채로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는 어렵다. 지구환경의 보전과 새로운 풍요란의 재구축이 최우선 과제인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사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근대 공업문명 그 자체인 대량생산 - 대량유통 - 대량폐기 - 환경파괴라는 경제구조의 악순환과 그것을 뒷받침해 온 이데올로기로서의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탈피하는 일이며, 그 상호 결박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식의 변혁으로 이글기에 촉발 경제사상이어야 한다. 그러한 경제사상의 출발은 결론부터 말하면 불교사상인 '소욕지족(小欲知足)'과 고대 중국의 철인 노자(老子)의 '만족(滿足)함은 아는' 사상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경제사상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 11 코칭과 사장학

이번 회에서는 코칭과 경영의 관계를 필자가 경영자로 근무 하였던 SK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원 각각의 자발적, 의욕적 두뇌활동 (Brain Engagement)이 기업경영의 핵심임을 강조한 SK그룹 특유의 경영법은 돌아가신 최중현 선대 회장이 만든 것이다. 이병철, 정주영 회장 등 카리스마가 강한 전설적 재벌 회장들과는 다른 의미의 학구적 경영 스타일을 정립했던 본인에, 자신이 만든 경영법을 '사장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즐겨 했다.

기업 경영의 주된 요소인 일과 구성원의 관계를 잘 정리해서 그 사이에서 창의력과 시너지를 창출해내면, 그것을 가지고 회사는 이윤을 만들어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을 이루고, 구성원은 자기 성취와 성공체험을 통해 자신감을 보유한 탁월한 능력자로 발전해 기업과 구성원이 승-승(Win-Win)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최중현 회장은 가끔 무박하게 웃으면서 "어떤 회장들은 자기 고유의 경영법을 숨겨두고 하나씩 카드를 꺼내 들어 '이건 몰랐지' 식의 경영을 하지만, 나는 이렇게 다 글로 써서 공유하고 나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이를 실천하는 열린 경영을 한다"고 자부하면서 이 사장학으로 SK를 세계일류기업으로 만들 것인데, 이 방법을 국가 경영에 활용하면 우리나라를 세계일류국

# 허달의 불교와 코칭

가로 만들 수 있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어느 날은 필자가 이 분 앞에서 사장학 경영법에 의한 경영성과를 브리핑하는데, 회장 가까이 배석했던 주력 계열사 사장이 머리를 회장 쪽으로 크게 끄덕이며 즐기고 있었다. 모두들 민망해 있는데, 회장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자네들, 사장이 왜 저렇게 즐기고 있는지 아나?" 대답이 없자 자문 자답. "회장 앞에서까지 즐기고 있다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증거야. 그러니 단전호흡을 하도록 하면 좋겠군."

이날의 해프닝은 결국 각 사업장에 단전호흡 수련장을 만들 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임직원의 건강 관리와 업무의욕 고취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리더가 갖는 덕목,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으면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용기는 승-승을 이루

는 좋은 성공인데, 이 경우는 그 성숙성(Maturity)이 잘 드러난 사례였다.

사장학의 요체라는 구성원의 자발적, 의욕적 두뇌 활동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경영직에서 은퇴한 뒤 SK아카데미 교수 시절, 필자가 강의 하던 SK경영법에는 이에 대한 해답이 '기업관', 즉 기업경영에 대한 철학을 공유함에 따른 전 구성원의 한 방향 정렬, 의욕, 관리역량, 코오디네이션, 커뮤니케이션, 경영자의 자세 등을 신장시키는 다섯 가지 '동적(動的) 요소'의 관리, 탁월 그 너머의 목표를 끝까지 추구하는 'Super Excellence(Supex) 추구', 일을 중심으로 마케팅, 생산, R&D, 지원팀을 묶는 '유기적 조직 운영', 'Can Meeting'에 의한 '전원 참여 경영' 등 여러 가지로 체계화 되어 있지만, 한 마디로 '코칭적 리더십'이라고 단순화

### 도전 · 창의력 · 협동력 · 성공체험의 선순환 필요

시킬 수 있겠다. 구성원 개인의 의욕 수준까지 읽어내고 이를 지지하는 리더의 배려 깊은 맥락적 경험, 자아의 개인이 없는 (Egoless) 열린 질문과 메시징을 통해 구성원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 내는 코칭 과정이 곧 자발적, 의욕적 두뇌활동 프로세스이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개인 단위, 팀 단위 창의력을 시너지로 묶어 전원 참여의 집단 창의력으로 융합시키면, 불가능해 보이던 높은 목표가 오히려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는 촉매가 돼 마술과 같은 모두의 성공체험이 일어나게 된다.

필자가 경영하던 기업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해 대규모의 포 상을 하고 또한 영예의 전당에 현액하는 'Supex 추구 상(賞)' 제도를 운용했는데, 그 상의 심사기준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엄격히 정해 통상의 경영성과들로부터 가려내도록 했었다.

첫째, 높고 큰 성과에 패기를 갖고 도전하여 성취했는가? 둘째, 장애 요인 제거에 통상적 문제해결 방법을 뛰어 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의력을 발휘했는가? 셋째, 팀의 모든 구성원이 성과에 참여해 시너지를 창출했는가? 넷째, 성공체험이 선순환을 이루어 다른 Supex 추구 활동에 공헌했는가?

최중현 회장이 사장학을 국가경영에 확대 적용하려 시도했던 것처럼, 이 정신을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외연(外延)하면 어떻게 될까? 인드라의 찬란한 그물, 상의성(相依性)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대승적 '일류의 삶'을 생각해본다. ■ 한국코칭센터 교문

〈카르마의 실체〉

**빙의령이여, 어디서 오는가?**

마음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것. 그때 맑음이 온다. 맑음은 법신이다. 여기, 빙의령의 소멸과 카르마를 녹이는 친기누설의 비법, 관음(觀音)수행법을 공개한다.

김성갑 저 / 신국판 / 336쪽 / 정가12,000원

〈관음과 수식관 氣〉

**행여, 깨달음을 얻으시려거든**

법신(法身)은 순백의 맑음. 기(氣)는 법력이 아닌 에너지일 뿐이다. 생각을 작게 하는 것은 일심법의 핵심. 하지만 무상정등정각은 무심만이 얻을 수 있다. 숨이 배꼽근처에서 멈춘다

김성갑 저 / 신국판 / 288쪽 / 정가12,000원

오소 라즈니쉬 저 / 길면 옮김 신국판 / 242쪽 / 12,000원

---

<p><b>육임이 보인다</b> 功손 저/4x6배판/양장본/70,000원</p>	<p><b>이계 풍수다</b> 신국판/성재권 저/15,000원</p>	<p><b>新사주학 핵심비결</b> 신국판/송월스님 저/50,000원</p>	<p><b>적천수 형의(上·下)</b>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저/40,000원</p>
<p><b>신비의 영부적 대사전</b>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p>	<p><b>그림 당사주 대전</b> 4x6배판/이선암, 진호일 공저/25,000원</p>	<p><b>한국인의 신 사주팔자</b>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저/35,000원</p>	<p><b>적천수 형의(上·下)</b>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저/40,000원</p>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신한은행 110-012-066080 예금주(소광호)

##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성도사  
● 성도사 주소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연백리 546번지  
● 창 건 주 : 최명신  
● 창건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8-8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창건주로서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대한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 주 지 해 임 공 고

● 사 찰 명 : 성도사  
● 주 소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연백리 546번지  
● 주 지 : 도명 (허정)

위 도명 스님은 장기간의 병고로 주지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바, 창건주로서 주지 해임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성도사 창건주 최명신